

송 고 한 애 국 의 발 걸 음 따 라

사람들은 전인민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노래, 들으면 들수록 생각깊어지는 그런 노래를 두고 명곡이라고 한다.

명곡은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명곡들은 많다. 그러한 명곡들중의 하나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면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다도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

이 노래는 1984년에 창작된 것이다.

노래의 가사에 있는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다도/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공화국의 역사적행로에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친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적인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눈앞에 어려운데. 생명의 희망도 행복도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고 웨치며 불붙는 적의 화점들을 염으로 막은 전승세대들, 전후 재미우에서 기적의 천마를 떠올리고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진 전세대들의 모습이...

그들의 뜨거운 선혈과 고귀한 땀방울에 의하여 공화국은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세대들이 지녔던 애국의 마음과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의 자욱자욱을 그대로 시어로 표현한다면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일 것이다.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비록 열한 글자밖에 안되는 이 짧은 속구에 위대한 공화국이 깎여온 승리와 기적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있고 사회주의의 선이 지닌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강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를 떠올린 이 나라 인민의 모습이 있다.

한 나라 인민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가를 보면 그 나라 인민들의 정신세계와 인생관, 이상과 포부를 알 수 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떤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품어안고 온갖 난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며 행복만을 안겨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성있는 80여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던 몇해전 10월 어느날, 개천치주탄광평원합기역의 조양탄광 3경에서는 뜻밖의 불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압축공기도 보장되지 않고 전기선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막장에 갇힌

4명의 탄부들속에는 20대의 젊은 스대장과 년로보장을 눈앞에 둔 발과공아바이, 꽃나이온전공진녀와 어린 두 자식의 아버지인 채란공이 있었다. 그들중 대부분은 불락물 처음 겪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 끝에 막장을 열었을 때 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의 눈앞에 제일 먼저 안겨오는 것은 동발밖에 서있는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 원수님 계시어 8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는 글발과 함께 다음교대를 위하여 또 한차례의 발과준비를 해놓고 쓰러진 그들의 모습이었다.

찬바람 불어와 떨어지도 흩이 되어 뿌리를 덮어주는 나무의 잎 새처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한 그들의 인생관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강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오늘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는 이런 참된 인간들의 고결한 애국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애국자들은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나라의 천만 인민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인민들은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부른다. 이 노래가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고있기때문이다.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이 인생관을 삶의 본령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공화국의 인민

들은 조국을 위한 멀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강건히 헤쳐왔으며 오늘은 더욱 휘황찬란할 미래를 향하여 세월을 주름잡으며 용진하고있다.

영웅조선의 절대적힘을 만장약한 주체법기들과 건설의 대변영기술에 천지개벽되는 수도 평양,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리상먼저 안겨오는 사회주의농촌들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공화국을 세상에 제일 강대 한 나라,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는 나라로 일떠세우시러 위대한 선의 길, 애국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은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이라고, 자신께서는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노래의 그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강코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려는 송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었기 때문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지니시였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생결단의 협로역경을 진두에서 굴함없이 헤치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고계신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뜻과 발걸음에 자신을 따르세우며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기어 가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5주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서 평범한 나날에나 어려운 나날에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놓고 혼신을 바쳐 조국변영의 값진 재부들을 창조해나가는 공로자, 로력헌신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이야말로 국가의 제일재부이고 국력증의 국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바로 이런 인민을 믿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변혁의 년대를 펼쳐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 나라 인민의 뜨겁고 열렬한 애국심에 떠받들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는 영원할 것이며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이 나라 인민의 영원한 인생의 주제가로 더 높이 울려질 것이다.

장혁철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3대를 이어가며 위생시설수리공으로 일하는 녀성에 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무슨 재미로 수선년동안 이 일을 합니까?》 《주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 주는 재미에 합니까.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 생 가까이 웃음을 해온 그녀 성, 인민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더없는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그의 인생관앞에서 해외동포는 머리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날 그 해외동포는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그도 녀성이었다. 그라고 왜 다른 녀성처럼 골게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일하는 마음에 따라 바꿀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평생직업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조국의 초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곤 하였다. 그 나날 최정순녀성은 여섯해 자란 네 자식모두를 자기와 한초소에 세웠다. 그의 한생은 이렇게 흘러갔다. 자기 일터를 사랑하며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고 그 아무리 풍파가 사납다 해도 공화국은 끄떡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자기의 일터를 자기 지켜선 조국이라고 여기며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고 부강조국건설사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온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었다는 사실만 놓고도 공화국이야말로 애국자대부대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가사

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있다.

누가 보진말길 알아주진말길 그렇게 한생을 묵묵히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강그리 다 바치진만 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소박한 것인가.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땀을 바쳤을뿐입니다.》

《전 나무처럼 살고싶었습니다. 나무는 죽어도 서서 죽고 있새는 떨어져도 뿌리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땀을 바쳤을뿐입니다.》

바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이는 발전소의 화실에 한층 석탄이 되어 날아들어도 좋고 가없이 푸르른 농장벌의 어린 토 한포기 살쳐우는 거름이 되어도 좋다는 송고한 일념을 안고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애국공민들이다.

애국자대부대라고 사람들속에서 정감대 불리우는 경우 동의 주민들인 과학자, 화력발전소의 혁신자부부, 공훈장수훈자부부, 직로공, 도로관공, 동물사양관리공, 교원 등 각계층 근로자들도 그러한 참된 인간들이다.

이러한 애국자들이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으로 공화국을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으로 일떠세우고있다.

진정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애국적인민에 의해 그토록 존엄높고 강하며 승리와 기적만을 떨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내 나이 올해 89살이다. 몇해 전 나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된 사람은 보았어도 80고령에 박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곤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안겨사는 공화국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삶의 품인가 하는것을 절감하곤 한다.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박사는커녕 비참한 인생살이에 부대끼다가 오래전엔 불우한 생을 마쳤을 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는 서울에서 모진 가난속에 온갖 고생을 겪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지계군을 하고 어머니는 쌀밭배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속에서도 새 지식층 나만은 어떻게 하나 공부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중 해방을 맞이했던날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국놈들에 의해 설움의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민의 세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던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남먼저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전선에서 소환되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학업성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나라에서는 나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안겨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꿈에도 바라마지 않던 교단에 서게 해주었다.

나를 위해 기울인 동지들의 사랑과 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

가. 명절날이면 대학의 교원들과 동무들이 저마다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이끌었고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모두가 떨쳐나 결혼식상은 물론 가수와 생활용품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진정 공화국의 품은 나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 온갖 꿈을 이룰수 있게 해준 행복의 요람이었다.

나는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계단 한계단 과학탐구의 탐을 쌓아나갔다.

그 나날 나는 현실에서 철박하게 요구하는 고강도조작체제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달려붙었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었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실패는 거듭되었다.

그때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곤 하였다. 보답의 열망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의 원천이었다.

연구소집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조를 받으며 마침내 실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고강도조작체 연구에서 성공할수 있었다.

주제106(2017)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의 연구성과를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나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에 오열을 터치고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듯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건으로서, 과학자로서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섰다.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 재산이란 운운배낭 하나뿐이었던 내가 받아안은 인생의 재부는 얼마나 크고 올라선 인생의 높이는 또 얼마나 아득한 것인가.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한다.

무릇 재부라고 할 때 값있는 모든 재산이나 물질적부류의 의미한다.

재부는 인간과 사회발전에서 필수적인 가치를 가진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의 제일재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는 이 땅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얼마전에 취재길에서 만났던 략랑구역 승리1동 36인민반에 살고 있는 리영희녀성을 잊을수 없다.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간직되어있었다.

그것은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려는 애국의 마음이었다.

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 삼지연시건설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역마다에 뜨거운 지성을 기울여온 그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사상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그는 가정에서 저축했던 자

금으로 많은 식량을 마련하여 애국미로 나라에 바치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전건설지 피해 복구현장을 돌아본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을 접하고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자기의 뜨거운 정열을 바치었다.

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때 우리 3형제모두가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라입은 모습을 보여 어머니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었구나.》라며 손등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의 학생이었던 내가 오늘은 아버지가 되어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마음은 격정으로 뜨거워졌다. 한껏 즐거움에 넘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때 우리 3형제모두가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라입은 모습을 보여 어머니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었구나.》라며 손등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의 학생이었던 내가 오늘은 아버지가 되어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마음은 격정으로 뜨거워졌다. 한껏 즐거움에 넘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내가 이에 대해 깊이 실감하게 된것은 며칠전 출근길에서였다. 수도의 어디서와 마찬가지로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의 지하철도 개선역앞에는 출근길에 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무개도전차며 아바트들마다에서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비친 희열과 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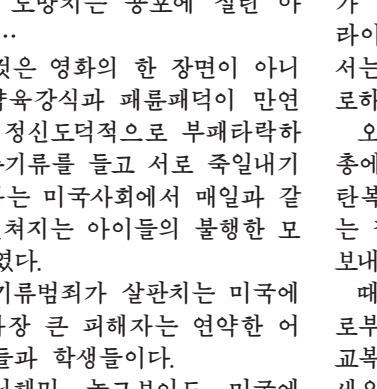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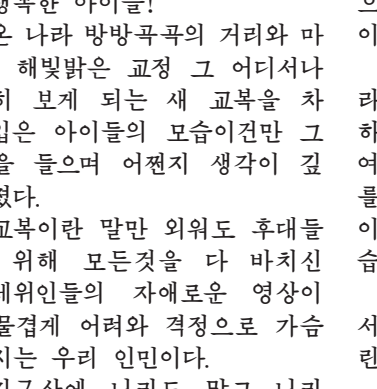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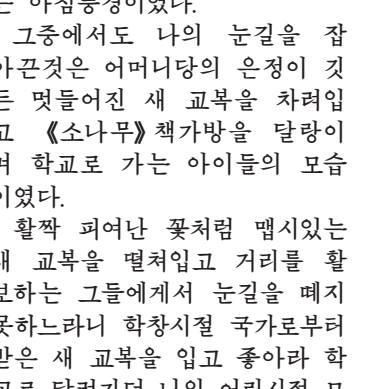
기쁨과 락관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아침풍경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눈길을 잡아끈것은 어머니당의 은정이 깃든 몇몇어린 새 교복을 차려입고 《소나무》책가방을 달랑이며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그에게도 돌보아야 할 남편과 자식이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한번 자기 가정의 행복을 조국의 부강변영과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렇듯 순결한 마음을 안고 그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을 안고 가시었다. 사심없이 리각도 지해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을 안고 가시었다. 사심없이 리각도 지해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평범한 날에나 존엄한 날에나 순결한 마음으로 조국을 굳건히 만들어가는 애국자들이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몸 내내는 애국자들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제일가는 재부이고 자랑중의 자랑이다.

이런 애국자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그토록 강하고 그 미래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홍흥식

없는 이런 암흑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랄수 있겠는가.

낳아준 부모는 있어도 운명을 지켜줄 힘이 없어 예년 나이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철부지들의 슬퍼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슬하의 자식들을 비바람, 눈바람속에서 굳건히 지켜주도록 어려울수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우리 공화국의 은덕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누에게나 돌보아주는 품이 소중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앞날의 모든 것과 직결된 더없이 귀중한 것으로 된다.

하기에 나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차려입는 멋진 새 교복이 단순한 교복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이 세상 돌도 없는 파사로운 품에 안긴 이 나라 천만아이들이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미려한 내 조국의 밝은 미래로 안겨왔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담 발걸음소리를 크나큰 힘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어 최약의 시련속에서도 불행을 모르고 세상에 부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고 끝없이 밝고 창창한 조국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는 출근길을 다그쳤다.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을 안고 가시었다. 사심없이 리각도 지해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평범한 날에나 존엄한 날에나 순결한 마음으로 조국을 굳건히 만들어가는 애국자들이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몸 내내는 애국자들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제일가는 재부이고 자랑중의 자랑이다.

이런 애국자들이 많고많아 공화국은 그토록 강하고 그 미래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홍흥식

없는 이런 암흑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랄수 있겠는가.

낳아준 부모는 있어도 운명을 지켜줄 힘이 없어 예년 나이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철부지들의 슬퍼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슬하의 자식들을 비바람, 눈바람속에서 굳건히 지켜주도록 어려울수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우리 공화국의 은덕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누에게나 돌보아주는 품이 소중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앞날의 모든 것과 직결된 더없이 귀중한 것으로 된다.

하기에 나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차려입는 멋진 새 교복이 단순한 교복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이 세상 돌도 없는 파사로운 품에 안긴 이 나라 천만아이들이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미려한 내 조국의 밝은 미래로 안겨왔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담 발걸음소리를 크나큰 힘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어 최약의 시련속에서도 불행을 모르고 세상에 부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고 끝없이 밝고 창창한 조국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는 출근길을 다그쳤다.

김주경